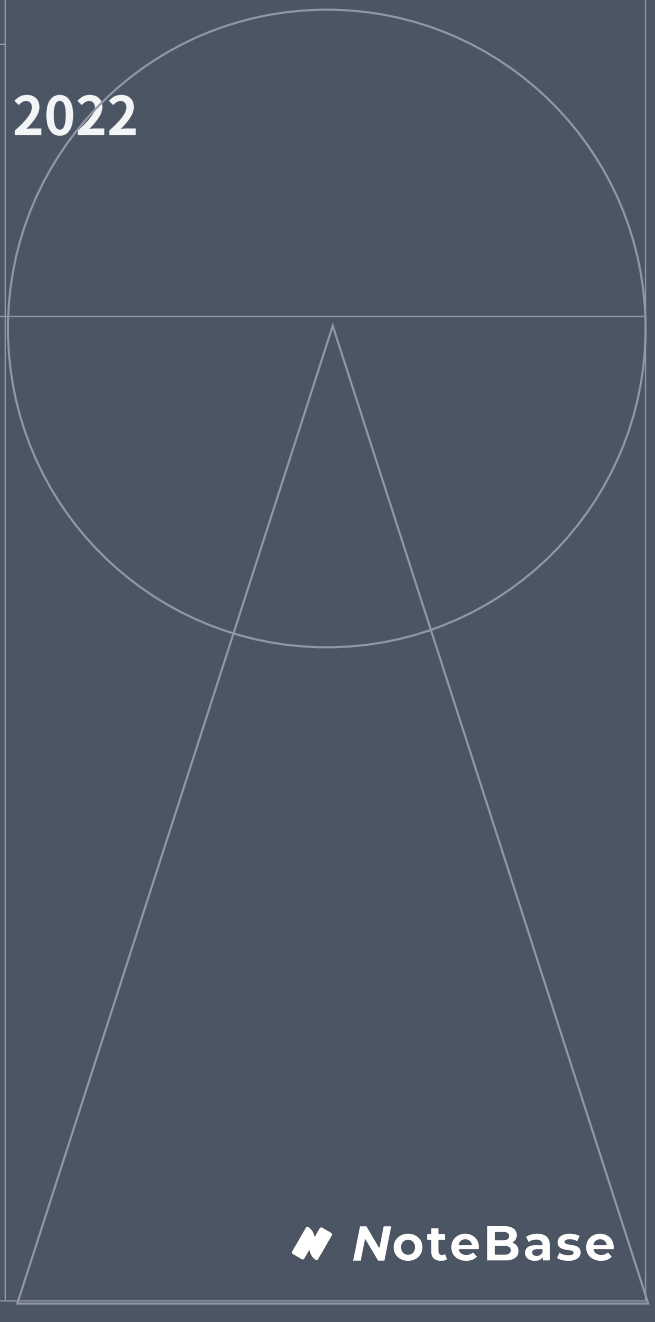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2

공무원/지방직/7급 · 국어 · 2022

문 1. 다음 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의 목적은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과 인간 존엄성의 수호를 위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며, 스포츠의 가능성과 힘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열 살 때 남북 선수단이 올림픽 경기장에 동시 입장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스포츠의 힘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유엔 총회의 ‘올림픽 휴전 결의안’ 초안 승인을 통해 그때 목격했던 스포츠의 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부각하고 있다.

② 권위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④ 연설자의 공신력을 강조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설에서 사용한 설득 방법을 실제 표현과 연결해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권위 있는 자료의 인용은 공인된 기준이나 문헌을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에 신뢰성과 설득력을 더하는 방법이다. 반대 사례의 제시는 주장과 어긋나는 사례를 먼저 든 뒤 이를 반박하는 방법이며, 설의적 표현은 질문의 형식을 빌려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연설은 올림픽 헌장을 인용하고 남북 선수단의 동시 입장 경험을 제시하여 올림픽 휴전 결의안의 승인을 뒷받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남북 선수단의 동시 입장은 스포츠의 힘을 보여 준 긍정적 사례로서 연설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대되는 사례’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② O: 올림픽 헌장의 목적을 직접 인용하여 올림픽 휴전 결의안의 취지가 올림픽 정신과 맞는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는 권위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③ X: 지문에는 독자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 형식의 설의적 표현이 없다.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올림픽 헌장 인용과 개인적 경험의 제시를 통해 주장에 공감과 설득력을 더한다고 볼 수 있다.
④ X: 연설자는 자신의 공직 경력이나 직위를 내세워 신뢰도를 높이지 않는다. ‘연설자의 공신력을 강조하여’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올림픽 헌장이라는 공인된 자료를 인용하여 주장에 신뢰성을 더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남북 선수단 동시 입장과 ④의 올림픽 헌장 인용을 모두 신뢰도 형성 방법으로 뭉뚱그리기 쉽다. 전자는 스포츠의 힘을 보여 주는 구체적 경험 사례이고, 후자는 권위 있는 자료의 인용이다. 또한 ‘설의적’이라는 말이 보이면 질문 문장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설 방법을 묻는 문항에서는 인용 부호 안의 공인된 문헌·발언이 있으면 권위 있는 자료의 인용인지 확인한다. 사례가 주장에 힘을 보태면 긍정 사례이고, 주장과 어긋난 뒤 반박되면 반대 사례이다. 설의법은 반드시 질문 형식이 나타나는지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헌장 인용은 권위, 남북 동시 입장은 사례, 질문 형식이 있어야 설의법이다.

NoteBase

문 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사적인 필요가 사적 건축을 낳는다면, 공적인 필요는 다수를 위한 공공 건축을 낳는다. 공공 건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면서 사적 자본이 생산해 낼 수 없는 공간을 생산해 내어야 한다. 이곳은 자본의 논리에서 소외된 영역을 보살피는 공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공공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보다 큰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배려하는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적 건축으로는 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공공 건축은 공적인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① 사적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② 사적 건축은 국민 다수의 보편적인 취향을 반영해야 한다.

③ 공공 건축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④ 공공 건축은 사적 자본을 활용하여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적 건축과 공공 건축의 목적 및 공공 건축이 갖추어야 할 성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적 건축은 개인의 필요를 위해 이루어지는 건축이다. 공공 건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사적 자본의 논리로 생산하기 어려운 공간을 만들고, 다수가 누릴 보편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건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것은 사적 건축이 아니라 공공 건축이다. 틀린 표현 '사적 건축' → '공공 건축'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공공 건축은 특정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누릴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 틀린 표현 '사적 건축은 국민 다수의 보편적인 취향을 반영' → '공공 건축은 특정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다수가 누릴 수 있는 보편성을 배려'로 고쳐야 한다.
③ O. 공공 건축은 사적 건축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여 공적인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④ X. 공공 건축은 사적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사적 자본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틀린 표현 '사적 자본을 활용하여'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사적 자본이 생산해 내기 어려운 공간을'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사적 건축'과 '공공 건축'의 주체를 바꾸어 놓았고, ④는 공공 건축의 필요가 되는 이유인 '사적 자본으로 생산하기 어려움'을 '사적 자본 활용'으로 뒤집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인의 필요·취향이 중심이면 사적 건축,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 아래 다수의 이용·보편성·지역성·문화적 전통을 고려하면 공공 건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적 건축은 개인의 필요, 공공 건축은 다수의 보편성·지역성·소통이다.

NoteBase

문 3.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서: 정국이 말이야.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해 주고 자기 혼자 공모전에 신청했더라.
채연: 글쎄, 왜 그랬을까?
민서: 그러게 말이야. 정말 기분 나빠.
채연: 정국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야.
민서: 사정은 무슨 사정? 자기 혼자 튀어 보고 싶은 거겠지.
채연: 내가 지난 학기에 과제를 함께 해 봐서 아는데, 그럴 애가 아니야. 민서야, 정국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민서: 너 자꾸 이럴 거야? 도대체 왜 정국이 편만 드는 거야?

① 채연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민서를 설득하고 있다.
② 채연은 민서의 의견을 수용하며 원만한 갈등 해소를 유도하고 있다.
③ 민서는 정국이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며 대화의 타협점을 찾고 있다.
④ 민서는 채연의 답변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며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화에서 각 화자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설득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설득은 자신의 주장에 근거나 사례를 들어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는 말하기이다.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는 그 의견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반응에서 드러나며, 논리적 비판은 상대 말의 근거와 결론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채연은 '지난 학기에 과제를 함께 해 봐서 아는데'라고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든 뒤, 정국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민서를 설득하는 모습이다.

② X: 채연은 민서의 '자기 혼자 튀어 보고 싶은 거겠지'라는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정국이에게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틀린 표현은 '민서의 의견을 수용하며'이고, 올바르게는 민서의 성급한 판단을 누그러뜨리며 정국이를 이해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③ X: 정국이의 상황을 고려하는 사람은 민서가 아니라 채연이다. 민서는 정국이의 행동을 이기적인 의도로 단정하고 채연에게도 불만을 드러낸다. 틀린 표현은 '민서는 정국이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며'이고, 올바르게는 채연은 정국이의 사정을 고려하며 민서에게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다.

④ X: 민서는 채연의 답변 속 모순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 '너 자꾸 이럴 거야?'라고 말하며 채연이 정국이 편을 든다고 감정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 틀린 표현은 '모순점을 찾아내며 논리적으로 비판하고'이고, 올바르게는 채연이 정국이를 두둔한다고 여기며 감정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채연의 공감·설득 태도를 민서에게 옮겨 놓은 선지이다. ④도 민서의 '왜 정국이 편만 드는 거야?'라는 발화를 논리적 비판으로 바꾸어 놓았으므로, 말의 근거와 말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화 설명 문제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나눈 뒤, 경험을 근거로 들었는지, 상대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감정을 드러냈는지, 실제 모순을 지적했는지를 발화 내용으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채연은 경험을 근거로 설득하고, 민서는 정국이를 단정하며 불만을 표한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배의 돛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배를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게 한다. 별도의 동력에 의지하지 않고도 추진력을 얻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선도 별도의 동력 없이 먼 우주 공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우주 공간에도 태양에서 방출되는 입자들이 일으키는 바람이 있어서 '햇살 돛'을 만들면 그 태양풍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정의
② 분류
③ 서사
④ 유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배의 돛이 바람으로 추진력을 얻는 원리를 우주선의 '햇살 돛'에 적용해 설명한 유추 서술 방식을 묻는다.

핵심 개념

정의는 대상의 본질적 속성이나 뜻을 밝혀 설명하는 방식이다. 분류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서사는 인물의 행위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방식이다. 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 사이의 공통 원리를 바탕으로 한 대상의 특성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글은 '유추'라는 개념의 뜻을 직접 정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정의'이며, 배의 돛의 작동 원리로 햇살 돛의 추진 원리를 설명하는 유추이다.
② X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범주로 나누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분류'이며, 배의 돛과 햇살 돛의 공통 원리를 연결한 유추이다.
③ X 인물의 행위나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서사'이며, 익숙한 배의 돛을 바탕으로 우주선의 햇살 돛을 설명하는 유추이다.
④ O 배의 돛이 바람으로 추진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태양풍을 이용하는 햇살 돛도 같은 원리로 추진력을 얻는다고 설명하므로 유추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지문에 설명이 들어 있다고 해서 모두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의 핵심은 '배의 돛'과 '햇살 돛'처럼 서로 다른 두 대상의 공통된 추진 원리를 대응시킨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 대상의 원리나 성질을 제시한 뒤, 다른 대상도 그와 같은 원리로 설명하면 유추이다. 대상들을 기준에 따라 나누면 분류이고,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전개하면 서사이다.

암기 포인트

배의 돛 : 바람 = 햇살 돛 : 태양풍. 공통 원리를 다른 대상에 적용하면 유추이다.

NoteBase

문 5. (가)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설가 에번 코넬은 단편소설의 초고를 읽어 내려가면서 쉼표를 하나하나 지웠다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쉼표를 원래 있던 자리에 되살려 놓는 과정을 거치면 단편 하나가 완성된다고 했다. 강박증 환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치열한 문장가가 아닌가! 불필요한 곳에 나태하게 찍혀 있는 쉼표는 글의 논리와 리듬을 망쳐 놓는다. 쉼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가)의 문장을 쓰거나 쉼표의 앞뒤를 섬세하게 짚게 하는 치밀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① 髀肉之歎
② 聲東擊西
③ 苦盡甘來
④ 天衣無縫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장의 완성도와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를 문맥에 맞게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천의무봉은 하늘의 옷에 꿰맨 자국이 없다는 뜻으로, 꾸민 흔적이나 흠이 없이 매우 자연스럽고 완전함을 이른다. 골육지탄은 가까운 혈족끼리 다투는 슬픔이고, 성동격서는 한쪽을 치는 듯하다가 다른 쪽을 공격하는 계책이며,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찾아옴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골육지탄은 골육, 곧 가까운 혈족 사이의 다툼에서 생기는 슬픔이다. 문장의 치밀함이나 완성도를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 문맥에는 천의무봉이 알맞다.
② X: 성동격서는 동쪽에서 소리를 내어 상대를 유인한 뒤 서쪽을 치는 전술이다.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 문맥에는 천의무봉이 알맞다.
③ X: 고진감래는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뜻이다. 문장 구성의 빈틈없음과는 관련이 없다. 틀린 표현 → 문맥에는 천의무봉이 알맞다.
④ O: 천의무봉은 인위적으로 꿰맨 자국처럼 어색한 흔적이나 흠이 없이 자연스럽고 완전한 상태를 뜻한다. 쉼표가 불필요할 만큼 매끄럽거나 쉼표의 위치까지 정밀하게 다듬은 문장을 가리키는 데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고진감래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뜻하는 성어라도 문장의 완성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성어의 분위기만 보지 않고, 문맥이 요구하는 대상이 인간관계·계책·고난의 결과·문장 중 무엇인지 구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성어 문제에서는 먼저 지문이 설명하는 대상을 잡는다. 문장·글의 자연스러움과 완전함이 핵심이면 천의무봉, 혈족 간 다툼이면 골육지탄, 상대를 속이는 전술이면 성동격서, 고생 뒤의 즐거움이면 고진감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천의무봉: 하늘의 옷에는 바느질 자국이 없다 → 흠없이 자연스럽고 완전하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① 이번 연주회의 백미(百眉)는 단연 바이올린 독주였다.
② 그분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익장(老益壯)을 과시했다.
③ 신춘문예 공모는 젊은 소설가들의 등용문(燈龍門)이다.
④ 우리 회사에는 미봉책(未縫策)이 아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용어의 뜻에 맞는 한자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백미는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나거나 돋보이는 것을 뜻하며 白眉로 쓴다. 노익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기력이 왕성함을 뜻하며 老益壯으로 쓴다. 등용문은 출세나 성공의 관문을 뜻하며 登龍門, 미봉책은 임시로 결함을 덮어 두는 방책을 뜻하며 彌縫策으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백미'의 한자 표기 '百眉'가 틀렸다. 백미는 여럿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을 뜻하므로 白眉로 쓴다.
② O. '노익장'은 늙을수록 더욱 기력이 왕성함을 뜻하며, 한자 표기는 老益壯이 맞다.
③ X. '등용문'의 한자 표기 '燈龍門'이 틀렸다. 출세나 성공의 관문이라는 뜻의 등용문은 登龍門으로 쓴다.
④ X. '미봉책'의 한자 표기 '未縫策'이 틀렸다. 임시로 결함을 덮어 두는 방책이라는 뜻의 미봉책은 彌縫策으로 쓴다.

오답 포인트

①의 '백미'는 소리가 같은 百이 아니라 白을, ③의 '등용문'은 燈이 아니라 登을 쓴다는 점이 함정이다. ④도 未縫이 아니라 '꿰매어 메운다'는 뜻의 彌縫으로 구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용어는 먼저 문맥상 뜻을 확인한 뒤, 그 뜻을 이루는 각 한자의 의미를 대조한다. 가장 뛰어남은 白眉, 늙을수록 강건함은 老益壯, 성공의 관문은 登龍門, 임시 봉합은 彌縫策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백미는 白眉, 노익장은 老益壯, 등용문은 登龍門, 미봉책은 彌縫策이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말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 그는 구멍 난 양말을 꼬매고 있다.

② 그는 자동차에 대해서 빠삭한 편이다.

③ 그는 나를 보고 계면쩍게 웃기만 했다.

④ 밥을 제대로 차려 먹기에는 어중된 시간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단어의 표준어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꿰매다'는 찢어진 곳 따위를 실로 꿰어 붙이는 뜻의 표준어이다. '꼬매다'는 '꿰매다'를 잘못 이른 말이다.
'빠삭하다'는 어떤 일을 자세히 알고 있거나 익숙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표준어이다.
'게면쩍다'는 마음에 걸려 어색하고 쑥스럽다는 뜻의 표준어이며, '어중되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라는 뜻의 표준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꼬매고'가 표준어가 아니다. 찢어진 양말을 실로 붙이는 뜻에는 '꿰매다'를 쓰므로 '그는 구멍 난 양말을 꿰매고 있다.'가 바른 표현이다.
② O: '빠삭한'은 어떤 일에 매우 익숙하거나 자세히 아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준어이므로 '자동차에 대해서 빠삭한 편'은 바른 표현이다.
③ O: '게면쩍게'는 마음에 걸려 어색하고 쑥스러운 모양을 나타내는 표준어이므로 바른 표현이다.
④ O: '어중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를 뜻하는 '어중되다'의 활용형이므로 바른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꼬매다'는 일상에서 흔히 들려 표준어처럼 느껴지지만, 표준어는 '꿰매다'이다. ④의 '어중된'은 낯설어 보여도 '어중되다'의 활용형이므로 틀린 말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낯선 표현만 골라내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쓰는 발음형이 표준어인지 확인한다. 특히 '실로 붙이다'의 뜻이면 기본형 '꿰매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양말은 '꼬매는' 것이 아니라 '꿰매는' 것이다.

NoteBase

문 8. ㉠~㉣을 활용하여 사례의 밑줄 친 부분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실현되는 위치에 따라 ㉠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다음으로 어말 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 연결 어미, ㉢ 종결 어미, ㉣ 전성 어미로 나뉜다.

① 형이 어머니를 잘 모시겠지만 조금은 걱정돼. 어간 + ㉠ + ㉡

② 많은 사람들이 오갔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해. 어간 + ㉠ + ㉣

③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셨을 텐데. 어간 + ㉠ + ㉠ + ㉡

④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편지를 보내셨을걸. 어간 + ㉠ + ㉠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어간 뒤 어미를 실현 위치와 기능에 따라 선어말 어미·말음 어미, 연결 어미·종결 어미·전성 어미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어말 어미는 어간과 말음 어미 사이에 놓이는 어미이다. 말음 어미는 어말에 놓이며, 앞말과 뒤말을 이어 주면 연결 어미, 문장을 끝맺으면 종결 어미, 용언을 다른 품사 구실로 바꾸면 전성 어미이다.
관형사형 어미 '-을'은 용언을 관형어 구실로 바꾸므로 전성 어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모시겠지만'은 '모시-+-겠-+-지만'으로 분석된다. '-겠-'은 선어말 어미이고, '-지만'은 뒤 절과 이어 주는 연결 어미이므로 제시된 분석이 맞다.

② O. '오갔기'는 '오가-+-았-+-기'로 분석된다. '-았-'은 선어말 어미이고, '-기'는 용언을 명사적 구실로 바꾸는 전성 어미이므로 제시된 분석이 맞다.

③ X. '드리셨을'은 '드리-+-시-+-었-+-을'로 분석된다. '-시-', '-었-'은 선어말 어미이지만, '-을'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이다. 틀린 표현은 마지막 'ㄴ'으로 연결 어미라고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어간+ㄱ+ㄱ+ㄹ'이다.

④ O. '보내셨을걸'은 '보내-+-시-+-었-+-을걸'로 분석된다. '-시-', '-었-'은 선어말 어미이고, '-을걸'은 문장을 끝맺는 종결 어미이므로 제시된 분석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을'은 뒤에 '텐데'가 이어져도 그 자체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이다. 뒤 절과 연결된다는 문장 전체의 모습만 보고 '-을'을 연결 어미로 판단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어간 뒤의 어미를 먼저 선어말 어미와 말음 어미로 가른다. 말음 어미는 문장을 이어 주는지, 끝맺는지, 또는 관형사형·명사형 등으로 바꾸는지를 확인하여 연결·종결·전성 어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겠-, -시-, -었-'은 선어말, '-지만'은 연결, '-기·-을'은 전성, '-을걸'은 종결 어미이다.

NoteBase

문 9. 밑줄 친 단어가 다의어 관계로 묶인 것은?

① 무를 강판에 갈아 즙을 내었다.
고장 난 전등을 새것으로 갈아 끼웠다.

② 안개에 가려서 앞이 잘 안 보인다.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한다.

③ 긴장이 되면 입술이 바짝바짝 탄다.
벽난로에서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다.

④ 이 경기에서 지면 결승 진출이 좌절된다.
모닥불이 지면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하나의 낱말에서 뜻이 서로 관련되게 확장된 다의어와, 소리는 같지만 뜻의 관련이 없는 동음이의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다의어는 한 낱말의 중심 의미에서 여러 뜻이 관련되게 확장된 말이다. 동음이의어는 발음과 표기는 같지만 서로 다른 낱말이어서 뜻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 두 뜻을 공통된 중심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무를 갈다'는 무를 잘게 으깨는 뜻이고, '전등을 갈다'는 이미 있던 전등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뜻이다. 두 '갈다'를 다의어 관계로 묶는 판단은 틀리며, 동음이의어 관계로 보아야 한다.

② X: '안개에 가리다'는 시야를 막아 보이지 않게 한다는 뜻이고, '음식을 가리다'는 음식의 좋고 싫음이나 먹을 것을 구별한다는 뜻이다. 두 '가리다'를 다의어 관계로 묶는 판단은 틀리며, 동음이의어 관계로 보아야 한다.

③ O: '입술이 타다'는 열이 오르거나 말라서 입술이 따갑고 상하는 뜻이며, '장작불이 타다'는 불꽃을 내며 불에 타는 뜻이다. 둘 다 불이나 열로 타는 현상에서 뜻이 확장되어 서로 관련되므로 다의어 관계이다.

④ X: '지면'은 '땅의 표면'이라는 뜻과 '신문이나 책의 면'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각각 地面과 紙面에서 온 말이므로, 두 '지면'을 다의어 관계로 묶는 판단은 틀리며 동음이의어 관계로 보아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뜻이 둘 이상이면 모두 다의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①·②는 뜻의 연결 고리가 없고, ④는 한자어의 바탕 자체가 다르다. ③만 '타다'의 불·열과 관련된 뜻이 이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낱말의 두 뜻을 공통된 중심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으면 다의어로 판단한다. 뜻이 전혀 이어지지 않거나 한자어의 원래 글자가 다르면 동음이의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장작도 타고 입술도 탄다. 불·열로 타는 뜻이 이어지므로 '타다'는 다의어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시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한숨아 셰 한숨아 네 어ᄂᆡ 틈으로 드러온다
> 고모장ᄌᆞ 셰살장ᄌᆞ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져귀 수돌져귀 ᄇᆡ목걸새 쑥닥 박고 용(龍) 거북 ᄌᆞ물쇠로 수기수기 ᄎᆞ엿ᄂᆞᆫᄃᆡ 병풍(屛風)이라 덜걱 져븐 족자(簇子)ㅣ라 ᄃᆡᄃᆡ글 ᄆᆞᆫ다 네 어ᄂᆡ 틈으로 드러온다
>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ᄌᆞᆷ 못 드러 ᄒᆞ노라
> — 작자 미상, 「한숨아 셰 한숨아」 —

① 부사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존재를 부각하고 있다.

② 의인화한 시적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④ 유사한 종류의 사물들을 열거하여 시적 대상을 향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 시가에서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부르는 방식, 반복과 열거가 만드는 효과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여기거나 사람에게 하듯 말을 거는 표현이다. 그러나 화자가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건넨다고 해서 반드시 대화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복은 대상에 대한 감정이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고, 열거는 여러 사물을 잇달아 제시하여 화자의 행동과 의지를 구체화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쪽쪽', '수기수기'와 같은 부사어를 사용하여 문을 단단히 막고 잠그는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이는 한숨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화자의 행동을 강조하여 시적 대상인 '한숨'의 존재를 부각한다.

② X: '한숨아'라고 부르고 '네 어니 몸으로 드리온다'라고 묻는 것은 의인화한 대상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숨의 응답은 제시되지 않으므로 대상과 말을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시상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대화'이며, 올바르게는 화자가 의인화한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③ O: 첫 구절과 '네 어니 몸으로 드리온다'가 반복된다. 이 반복은 한숨이 찾아오는 상황을 되새기며 그것을 막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정과 시적 대상에 대한 감정을 강조한다.

④ O: '고모장죽', '세살장죽', '가로다지', '압둘저귀', '수둘저귀', '용 거북 즈물쇠' 등 문을 막고 잠그는 유사한 사물들을 열거한다. 이를 통해 한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②는 '한숨'이 사람처럼 불리고 질문의 대상이 된다는 점 때문에 대화법으로 오인하기 쉽다. 대화는 화자와 대상이 서로 발화해야 성립하므로, 이 작품은 독백적 호명과 질문의 방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람 아닌 대상에 대한 호명·질문이 나오면 먼저 의인법을 확인한다. 이어 대상의 응답이 실제로 제시되는지를 살펴 대화 여부를 판별하고, 사물의 나열은 그 사물들이 화자의 어떤 행동이나 의지를 구체화하는지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의인화는 일방적 호명도 가능하지만, 대화는 상대의 응답까지 있어야 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째 해남 대흥사에 있나? 서울 조계사에 있어야지 ..... ” “에이, 대흥사도 대찰(大刹)이에요.”
“그래도 중들의 중앙청은 역시 조계사 아닌가?” “스님들에게 중앙청이 어디 있어요? 그거 싫다고 떠난 사람들인데.”
“그래서 가짜가 많다고 ..... ” “네?” “책은 많이 썼는가?”
“책이라뇨?” “스님들이 책 많이 쓰지 않나, 요즘?” “에이, 지명 스님은 그런 거 안 써요.” “그러면 테레비에는 나와?”
“테레비에도 안 나와요. 지명 스님,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라디오에는? 요새는 불교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도 생겼다는데?” “나대는 스님이 아니라니까요.”
“에이,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스님이 아니야.” “네?”
그는 내 인내를 시험해 보기로 작정했던 모양인가? 이유 없이 따귀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중략)...
나는, 정말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 세상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중생을 제도하는 스님도 있고 더 잘 제도할 수 있도록 그런 스님을 가르치는 스님도 있어요. 텔레비전 시청자나 라디오 청취자에게 적합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나갈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그것은 못 나간 사람들이 만들어 낸 변명이야.”
— 이윤기, 『숨은그림찾기1-직선과 곡선』에서 —

①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조계사’와 ‘대흥사’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다.

②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책’을 쓰는 것은 ‘공부 많이 한 스님’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③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지명 스님’은 ‘못 나간 사람들’에 속한다.

④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청’에 있는 스님들은 ‘중앙청’이 아닌 곳에 있는 스님들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스님의 공부의 깊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 인물의 관점에서 구별하는 문제이다. ‘그’는 중앙 소속, 책 집필, 방송 출연을 공부의 척도로 보지만, ‘나’는 그러한 외형적 활동만으로 공부의 깊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핵심 개념

‘그’의 판단 기준은 중앙청 소속과 대중 매체 활동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경력이다. ‘나’의 판단 기준은 다른 스님이나 방송 출연자를 가르치는 역할까지 포함하는 실제 지식과 가르침의 깊이이다. 따라서 책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나'는 조계사를 '중들의 중앙청'으로 보는 생각 자체를 부정하고, 대흥사도 대찰이라고 말한다. '나'의 입장에서는 조계사와 대흥사를 중앙과 지방, 우월과 열등으로 나누지 않는다.

② X: '나'는 지명 스님이 책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어 다른 스님을 가르치는 스님도 있다고 설명한다. 틀린 표현은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올바르게는 책을 쓰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공부 많이 한 스님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니다.

③ O: '그'는 책을 쓰지 않고 텔레비전·라디오에도 나오지 않는 지명 스님을 공부를 많이 한 스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의 설명을 '못 나간 사람들이 만들어 낸 변명'이라고 하므로, 그의 관점에서는 지명 스님도 못 나간 사람에 속한다.

④ O: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해남 대흥사가 아니라 서울 조계사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는 중앙청인 조계사에 있는 스님이 그렇지 않은 곳의 스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그'의 판단 기준을 '나'의 입장에 옮겨 놓은 선지이다. '나'는 책·방송 출연 여부를 공부의 깊이와 동일시하는 태도에 반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관점을 묻는 문제에서는 발화 뒤의 반응과 반박을 함께 확인한다. 어떤 기준을 말한 인물이 누구인지, 다른 인물이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지 부정하는지를 구분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그'는 외형적 경력으로 판단하고, '나'는 가르침의 깊이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거에 예술은 고급 예술만을 의미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의 작품을 귀족과 같은 상층 사람들이 제한된 장소에서 감상하기만 했다. 그러나 사진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명으로 기존의 걸작품이 복제되어 인테리어 소품이나 낭만적인 엽서로 사용되면서 대중도 예술 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원작에 버금가는 위작이 만들어지고, 게다가 일상의 생필품처럼 사용되는 작품도 등장하게 되면서는, 대중은 더 이상 예술 작품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소비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예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전까지는 예술 작품이 진본성, 유일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기술 복제 시대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원에 타도록 설치된 그네를 예술 작품이라 하는 것과 같이 일상의 물품 역시 과거와 달리 예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① 복제와 관련된 기술의 발명은 예술을 둘러싼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② 기술 복제 시대 전에도 귀족은 예술 작품을 실용적으로 사용했다.

③ 기술 복제 시대에는 진본성을 갖추는 것이 예술 작품의 필수 조건이 되지 못했다.

④ 기술 복제 시대 전에는 인테리어 소품이 예술에 포함될 수 없었지만 기술 복제 시대에는 포함될 수 있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술 복제가 예술의 향유 방식과 예술의 범주·조건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술 복제 시대 이전의 예술은 진본성과 유일성을 갖춘 고급 예술로 여겨져 상층 사람들이 감상하는 대상이었다.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은 복제로 대중과 공유되고, 능동적으로 소비·실용적으로 사용되며, 진본성·유일성만으로 예술 여부를 가를 수 없게 되었다.
일상의 물품도 과거와 달리 예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사진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로 걸작품이 복제되면서 대중도 예술 작품을 공유하고, 예술을 둘러싼 향유 방식이 바뀌었다.

② X. 기술 복제 시대 이전에 귀족과 같은 상층 사람들은 예술 작품을 제한된 장소에서 감상하기만 했다. 틀린 표현은 '실용적으로 사용했다'이며, 올바르게는 '감상하기만 했다'이다.

③ O. 기술 복제 시대에는 예술 작품이 진본성과 유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전의 조건이 적용될 수 없었다.

④ O. 복제된 걸작품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되고, 일상의 물품도 예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예술의 범위가 과거보다 넓어졌다.

오답 포인트

②는 '귀족'이라는 과거의 주체에 기술 복제 시대 이후의 '실용적 사용'을 결합한 선지이다. 과거에는 상층 사람들이 예술을 감상하기만 했고, 능동적 소비와 실용적 사용은 복제 기술의 등장 뒤에 나타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대 변화가 제시되면 각 시대의 주체·향유 방식·예술의 조건을 나누어 대조한다. 과거의 주체에 이후 시대의 특징이 붙었는지를 확인하면 부합하지 않는 선지를 가릴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과거 예술은 상층의 감상과 진본성·유일성, 기술 복제 시대 예술은 대중의 소비·사용과 범주 확장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3.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검은색 옷과 흰색 옷을 입은 6명이 두 개의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주고받는 동안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지나가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를 주고받았는지 세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패스 횟수에 대해서는 각자의 답을 말했는데, 동영상 중간 중간에 출현한 고릴라 복장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참가자들이 패스 횟수를 세는 데 집중하느라 1분이 채 안 되는 동영상 가운데 9초에 걸쳐 등장하는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A는 이 실험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했다. (가). 이 실험 결과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도록 권하는데, 밝은색 옷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고, 덕분에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밝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의 (나) 없기 때문이다.

① (가): 인간의 인지는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 충분조건일 수는 있어도 필요조건일 수는

② (가): 인간의 인지는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일 수는

③ (가):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인다
(나): 충분조건일 수는 있어도 필요조건일 수는

④ (가):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인다
(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일 수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택적 주의의 특징과,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행위가 인지에 갖는 필요조건·충분조건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택적 주의는 여러 자극 가운데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에 정신적 자원을 집중하는 현상이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흰색 옷의 패스 횟수에 집중하여 고릴라 복장을 인지하지 못했다.
필요조건은 어떤 결과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고, 충분조건은 그 조건만 갖추면 결과가 반드시 성립하는 조건이다. 이 문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바라보는 것은 인지의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바라보기만으로 반드시 인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조건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의 '인간의 인지는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실험의 핵심 결론이 아니다. 참가자들은 고릴라를 실제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어도 패스 세기에 주의를 집중하여 인지하지 못했다. 틀린 표현 → (가)는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인다'가 적절하다.
또한 (나)의 '충분조건일 수는 있어도 필요조건일 수는'도 반대이다. 틀린 표현 →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② X
(나)는 바라보는 행위가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그러나 (가)의 '인간의 인지는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선택적 주의 때문에 고릴라를 놓친 실험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 → (가)는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인다'가 적절하다.

③ X
(가)는 패스 횟수라는 과제에 주의를 집중한 나머지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나)의 '충분조건일 수는 있어도 필요조건일 수는'은 조건 관계를 뒤집었다. 틀린 표현 →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④ O
(가)는 인간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실험 결과를 정확히 나타낸다. (나)도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일은 인지에 필요할 수 있지만, 주의가 다른 곳에 쏠리면 바라보아도 인지하지 못하므로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문맥에 맞는다.

오답 포인트

고릴라가 화면에 등장했으므로 '인지는 시각과 밀접하다'고만 일반화하기 쉽다. 그러나 이 실험의 핵심은 보이는 자극도 주의가 향하지 않으면 인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바라보기'는 인지에 필요한 단계일 수 있어도, ③처럼 인지를 보장하는 충분조건으로 바꾸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정 대상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과제에 집중하여 알아차리지 못한 사례가 나오면 선택적 주의를 먼저 판단한다. 이어서 A가 있어야 B가 가능한지와 A만으로 B가 반드시 생기는지를 나누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주의가 향해야 인지가 이루어진다. 바라봄은 인지의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문 14.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寂寞荒田側 적막한 묵정밭 가에
繁花壓柔枝 만발한 꽃이 보드라운 가지를 누르네
香經梅雨歇 향기는 장맛비 지나면 옅어지고
影帶麥風欹 그림자는 보리바람 맞으면 흔들리겠지
車馬誰見賞 수레 탄 사람들이 누가 보아 주리
蜂蝶徒相窺 벌과 나비만 기웃거리는구나
自慙生地賤 천한 땅에 태어난 것 부끄러우니
堪恨人棄遺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어찌 원망하리오
— 최치원, 「촉규화(蜀葵花)」 —
이 시는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 시절, 관직에 오르기 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길가의 촉규화에 자신을 투영하여 출중한 능력에도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었던 서글픈 처지를 노래하였다. ㉠이 시에서 "만발한 꽃"은 작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빼어난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등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등용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레 탄 사람들"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수레 탄 사람들"과 자신을 이어줄 수 있는 "벌과 나비" 역시 절실했다. 이 작품에서 ㉣"천한 땅"은 시적 대상인 촉규화가 피어난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작가 자신이 태어난 땅을 의미하기도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최치원의 「추구화」에서 국화에 투영된 화자의 처지와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화는 화자 자신을 비유한 대상이며, 만발한 꽃은 화자의 뛰어난 능력을 뜻한다. 수레 탄 사람들은 그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속의 사람들로, 벌과 나비는 꽃 주변을 맴도는 존재일 뿐 화자와 수레 탄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가 아니다. 친한 땅은 국화가 피어난 곳이면서 화자가 태어난 고향을 함께 가리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만발한 꽃'은 화자 자신이 지닌 빼어난 능력을 국화의 아름답고 풍성한 꽃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② O: 화자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등용해 줄 세속의 사람들을 원한다. '수레 탄 사람들'은 이러한 인정과 등용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③ X: '벌과 나비'는 수레 탄 사람들과 화자를 이어 주는 매개가 아니다. 시에서는 수레 탄 사람들이 꽃을 보아 주지 않고 벌과 나비만 꽃 주변을 기웃거린다고 하여,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한다. 틀린 표현 '자신을 이어줄 수 있는' → 벌과 나비는 화자의 능력을 세상에 알려 주는 존재가 아니라 꽃 주변을 맴도는 존재이다.
④ O: '친한 땅'은 국화가 피어 있는 땅을 뜻하는 동시에, 화자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뜻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벌과 나비가 꽃과 친한 존재라는 점을 이용해 긍정적 매개자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누가 보아 주리'와 '벌과 나비만 기웃거리는구나'의 대비를 보면, 화자가 바라는 것은 벌과 나비의 접근이 아니라 수레 탄 사람들의 인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항에서는 해당 시어만 떼어 보지 않고, 앞뒤의 대조 관계와 화자의 정서를 함께 확인한다. 'A는 보지 않고 B만 기웃거린다'와 같은 표현에서는 B를 화자가 바라는 대상이나 연결 매개로 해석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국화=화자, 만발한 꽃=빼어난 능력, 수레 탄 사람들=인정해 줄 세속의 사람들, 벌·나비=꽃 주변을 맴도는 존재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零下 十三度
零下 二十度 地上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起立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零下에서
零上으로 零上 五度 零上 十三度 地上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 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

①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감탄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표현 방식과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모습·행동·감정을 부여하는 표현이다. 감각적 심상은 감각으로 대상을 생생히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고, 공감각적 심상은 한 감각의 자극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시에서는 나무에 '온몸', '대가리', '두 손', '혀' 등을 부여하여 의인화하고, 겨울에서 봄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나무가 '대가리 처들고', '두 손 올리고',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라고 행동하는 모습은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다.
② O - '아아, 마침내, 끝끝내'에서 감탄사 '아아'를 사용하여 꽃피는 나무를 바라보는 화자의 벅찬 정서를 드러낸다.
③ O - '춘하 삼월'의 나무가 온몸으로 봄을 밀어 올리고, 뒤이어 '푸르른 사월 하늘'을 맞으며 꽃피는 나무가 되는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공감각적 심상'이다. 이 시에는 나무가 견디고 밀어 올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낸 감각적·운동감 있는 심상은 있으나,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한 공감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의인화와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나무가 처한 상황을 보여 준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감각적 심상'이 쓰였다는 사실을 '공감각적 심상'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뜨거운 혀'와 '온몸이 으스러지도록'은 강렬한 신체 감각을 드러내지만, 감각 사이의 전이는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람 아닌 대상이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면 의인법인지 확인한다. 감각 표현이 보이면 먼저 어느 한 감각을 드러낸 것인지 살피고, 색을 소리로 듣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감각이 결합·전이될 때만 공감각적 심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의인법은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식, 공감각은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젊은이들 가운데 약삭빠르고 방탕하여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제 세상 만난 듯 기뻐하여 앉고 서고 움직이는 예절을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한다.
(나) 성인께서도 사람을 가르치실 때 먼저 겉모습부터 단정히 해야만 바야흐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시었다. 세상에 비스듬히 눕고 기대서서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보면서 주경존심(主敬存心)※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 근래 어떤 자가 반관(反觀)※으로 이름을 떨쳐 겉모습을 단정하게 꾸미는 것을 가식이요, 허위라고 한다.
(라) 나도 예전에 이 병에 깊이 걸렸던 터라 늙어서까지 예절을 익히지 못했으니 비록 후회해도 고치기가 어렵다.
(마) 지난번 너를 보니 옷깃을 가지런히 하여 똑바로 앉는 것을 즐기지 않아 장중하고 엄숙한 기색을 조금도 볼 수 없었는데, 이는 내 병통이 한 바퀴 돌아 네가 된 것이다.
— 정약용, 「두 아들에게 부침」에서 —

※ 주경존심(主敬存心): 공경하는 마음을 간직함.
※ 반관(反觀): 남들이 하는 대로 보지 않고 거꾸로 보거나 반대로 생각하는 것.

① 가 - 나 - 다 - 라 - 마
② 나 - 라 - 마 - 다 - 가
③ 다 - 가 - 라 - 마 - 나
④ 마 - 라 - 가 - 나 - 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시어와 화자의 경험을 연결하여 글의 논리적 전개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1. (다) — 겉모습을 단정하게 꾸미는 일을 가식·허위라고 여기는 세태를 먼저 제시한다.
2. (가) — '이 말'은 (다)의 주장을 가리킨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들이 예절을 제멋대로 한다는 결과가 이어진다.
3. (라) — 화자가 자신도 예전에 그러한 태도라는 '병'에 걸려 예절을 익히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4. (마) — 화자는 아들에게서 같은 병통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신의 병통이 이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5. (나) — 성인의 가르침을 들어 겉모습을 단정히 하는 일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출발점임을 밝히며 글을 마무리한다.

왜 이 순서: (가)의 '이 말'은 (다)의 '가식이요, 허위'라는 주장이 있어야 뜻이 드러나고, (마)의 '내 병통'은 (라)의 화자 고백 뒤에 와야 자연스럽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이 말'을 받으므로 (다) 뒤에 와야 한다. (나)는 성인의 가르침으로 글의 결론 역할을 하므로 처음에 놓기 어렵다. 틀린 순서: 가ㅡ나ㅡ다ㅡ라ㅡ마 → 올바르게는 다ㅡ가ㅡ라ㅡ마ㅡ나이다.
② X — (나)는 앞의 잘못된 태도와 화자의 고백을 종합하는 결말이므로 첫머리가 될 수 없다. 틀린 순서: 나ㅡ라ㅡ마ㅡ다ㅡ가 → 올바르게는 다ㅡ가ㅡ라ㅡ마ㅡ나이다.
③ O — (다)의 주장에 (가)가 '이 말'로 이어지고, (라)의 자기 고백과 (마)의 아들에 대한 경계 뒤에 (나)의 성인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다.
④ X — (마)의 '내 병통'은 화자가 (라)에서 밝힌 과거의 병을 받아야 하므로 (라)보다 앞설 수 없다. 또한 (다)는 (가)의 '이 말'의 선행 내용이므로 마지막에 놓을 수 없다. 틀린 순서: 마ㅡ라ㅡ가ㅡ나ㅡ다 → 올바르게는 다ㅡ가ㅡ라ㅡ마ㅡ나이다.

오답 포인트

(가)의 '이 말'과 (라)의 '이 병', (마)의 '내 병통' 같은 지시 표현을 따로 읽으면 문단을 잘못 배열하기 쉽다. 특히 (나)는 내용상 일반 원리를 제시하지만, 이 글에서는 앞선 사례들을 정리하는 결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배열에서는 먼저 지시어의 선행 내용을 찾고, 이어서 일반 주장·구체적 결과·화자의 경험·상대에게의 적용·결론의 흐름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이 말'은 앞 문단의 주장, '내 병통'은 앞 문단의 자기 고백을 받는다.

NoteBase

문 17. ㉠~㉤을 문맥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농촌의 모습을 주된 소재로 삼는 A 드라마에 결혼이주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녀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다룰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녀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단순화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 드라마에는 모문화와 이문화 사이의 차이로 인해 힘겨워하는 여성, 민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여성, 아이의 출산과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여성 등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 드라마에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보다는 ㉡부부간의 사랑이나 가족애를 통해 극복하는 낭만적인 해결 방식을 주로 선택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화에서는 여성 주인공이 아이의 태교 문제로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신의 생각을 포기함으로써 그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마무리된다. 태교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주된 원인이었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그것에 주목하기보다 ㉢남편과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하여 사랑과 이해에 기반한 순종과 순응을 결혼이주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이러한 강요된 선택과 해소되지 않은 심적 갈등이 사실대로 재현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원인은 은폐되고 여성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통해 해당 문제들이 성급히 봉합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인의 시선으로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① ㉠을 “그녀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도”로 고친다.
② ㉡을 “시댁 식구를 비롯한 한국인들과의 온정적인 소통을 통해 극복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식”으로 고친다.
③ ㉢을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으로 고친다.
④ ㉣을 “이러한 억압적 상황과 해소되지 않은 외적 갈등이 여과 없이 노출됨으로써”로 고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평문의 문맥에서 앞뒤 문장의 논리 관계와 필자의 비판 대상을 고려하여 밑줄 친 표현의 수정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글은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문제를 드라마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여성의 양보와 희생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방식을 비판한다. 따라서 긍정과 부정의 대조, 갈등의 실제 원인, 드라마가 강조하는 여성상, 갈등 재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앞문장은 여성들의 문제를 다룰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고, 뒤의 '하지만'은 그 기회가 문제를 단순화할 위험도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덧붙인다. '문제들을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도 긍정적 내용이므로 대조 관계에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도' → 올바르게는 '단순화할 수 있는 위험성도'이다.

② X: 글은 드라마가 부부간의 사랑이나 가족애로 갈등을 극복하는 낭만적 해결 방식을 선택한다고 비판할 뿐, 시댁 식구를 비롯한 한국인들과의 온정적 소통이라는 구체적 해결 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시댁 식구를 비롯한 한국인들과의 온정적인 소통을 통해 극복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식' → 올바르게는 '부부간의 사랑이나 가족애를 통해 극복하는 낭만적인 해결 방식'이다.

③ O: 드라마는 태교 문화의 차이 같은 갈등의 원인보다 여성 주인공이 남편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에게 순종과 순응을 요구한다. 따라서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으로 고치는 것이 문맥에 맞는다.

④ X: 글은 강요된 선택과 해소되지 않은 심적 갈등이 사실대로 재현되지 않아 실질적 원인이 은폐된다고 비판한다. '여과 없이 노출됨으로써'는 갈등이 드러난다는 뜻이어서 정반대이다. 틀린 표현 '억압적 상황과 해소되지 않은 외적 갈등이 여과 없이 노출됨으로써' → 올바르게는 '강요된 선택과 해소되지 않는 심적 갈등이 사실대로 재현되지 않음으로써'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하지만' 뒤에도 긍정적 내용을 넣어 접속 관계를 무너뜨리고, ④는 '재현되지 않음'을 '노출됨'으로 바꾸어 필자의 비판을 반대로 만든다. ③은 원문의 표면상 갈등 장면보다 그 갈등이 여성의 포기와 순응으로 마무리된다는 비판의 결론을 따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 수정 문제에서는 접속어가 만드는 논리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글 전체의 결론이 비판하는 대상과 수정 표현의 방향이 같은지 비교한다. 특히 '은폐됨·재현되지 않음'과 '노출됨'처럼 평가 방향을 뒤집는 낱말을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문맥 수정은 접속어의 방향과 필자의 결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뒤에는 앞내용과 대비되는 평가가 온다.

NoteBase

문 18.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는 행위의 적극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A는 자율 방범대원들에게 이 일의 자원 동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자기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과 타인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그리고 둘 다 말한 사람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그 후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2개월간 방범 순찰에 참여한 횟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 모두가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순찰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자 중 타인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의 순찰 횟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는 이를 토대로 (가) 고 추정하였다.

① 자기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은 타인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보다 행위의 적극성이 높다

② 타인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보다 행위의 적극성이 높다

③ 자기지향적 동기는 행위의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④ 자기지향적 동기가 행위의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타인지향적 동기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가 방법 순찰이라는 행위의 적극성에 미치는 관계를 실험 결과로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기지향적 동기는 자신의 흥미·만족·가치에서 비롯되어 행동하는 동기이다. 타인지향적 동기는 보상·평가·처벌처럼 외부의 요인에 의해 행동하는 동기이다.
제시된 결과에서는 자기지향적 동기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순찰 횟수가 많고, 자기지향적 동기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타인지향적 동기도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순찰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자기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은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은 사람보다 순찰 횟수가 많다.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은 사람 중 타인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이 더 적극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② X. '타인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자기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보다'가 틀린 표현이다. 실제로는 자기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이 타인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보다 순찰 횟수가 많다고 추정한다.

③ X.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가 틀린 표현이다. 제시된 결과는 자기지향적 동기가 있을 때 순찰 횟수가 더 많았음을 보여 줄 뿐, 부정적 영향은 보여 주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기지향적 동기는 이 조사에서 행위의 적극성과 긍정적 관계를 보인다.

④ X. '타인지향적 동기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가 틀린 표현이다.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 중에서도 타인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의 순찰 횟수가 더 많았다. 올바르게는 이 조사에서 타인지향적 동기도 자기지향적 동기가 있는 집단에서는 순찰 횟수와 긍정적 관계를 보인다.

오답 포인트

타인지향적 동기만 있는 집단과 자기지향적 동기만 있는 집단의 순서를 뒤집는 함정이 핵심이다. 또한 두 동기가 함께 있을 때 순찰 횟수가 더 많다는 결과를 타인지향적 동기의 부정적 영향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집단을 '자기지향만·타인지향만·둘 다'로 나누어 비교한다. 자기지향 동기 유무에 따른 전체 비교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자기지향 동기 집단 안에서 타인지향 동기 유무를 비교하면 선지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이 자료의 순찰 적극성은 '둘 다 > 자기지향만 > 타인지향만'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9. 갑~병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가족이 아닌 이들과 대화할 때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동네'라는 표현과 비교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 '우리 동네'는 화자의 동네이기도 하면서 청자의 동네이기도 한 특정한 하나의 동네를 지칭하잖아. 그런 식이라면 '우리 엄마'는 형제가 아닌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엄마를 지칭하는 이상한 표현이 되는 셈이지. 그러니까 이 경우의 '우리 엄마'는 잘못된 어법이고 '내 엄마'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라고 할 수 있어.
을: 청자가 사는 동네와 화자가 사는 동네가 다른 경우에도 '우리 동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물론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청자가 사는 동네와 다른, 화자가 사는 동네가 되겠지. 이 경우 '우리 동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말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 정도를 의미할 거야. 갑이 문제를 제기한 '우리 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
병: '우리 엄마'와 '내 엄마'가 같은 뜻을 갖는 것은 아니야. '내 동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동네'라고 하는 것은 동네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이겠지. 마찬가지로 '내 엄마'라고 하지 않고 '우리 엄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가족 공동체 속에서의 엄마를 생각하기 때문일 거야. 즉, 가족 구성원 중의 한 명인 엄마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지.

<보기>
ㄱ. 갑은 '우리 엄마'라는 표현이 화자와 청자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고 보는 입장이다.
ㄴ. 형제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이 형과 동생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는 것은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ㄷ. 무인도에 혼자 살아온 사람이 그 섬을 '우리 마을'이라고 말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병의 입장을 약화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친족어에 붙는 '우리'와 장소 명사에 붙는 '우리'의 지시 방식, 그리고 '우리'가 전제하는 공동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우리 동네’의 ‘우리’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아는 특정 동네를 가리킬 수도 있고, 청자와 무관하게 화자가 사는 동네를 가리킬 수도 있다. 반면 ‘우리 엄마’는 친족 관계를 바탕으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어머니를 가리킬 때 자연스럽다. ‘우리’에는 단순한 복수 표시를 넘어 그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의 관념이 담긴다.

선지별 해설

ㄱ O. 갑은 가족이 아닌 청자에게 한 ‘우리 엄마’를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한 어머니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본다. 따라서 갑의 입장을 바르게 요약하였다.

ㄴ X. 형제는 실제로 한 어머니를 공유하므로 ‘우리 엄마’가 형과 동생 모두의 어머니를 가리켜도 을의 입장을 약화하지 않는다. 을은 청자와 화자의 거주지가 달라도 ‘우리 동네’가 화자가 사는 동네를 뜻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우리 엄마’에도 적용한다. 틀린 표현은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이고, 올바르게는 ‘을의 입장과 양립할 수 있다’이다.

ㄷ O.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이 ‘우리 마을’이라 하면 어색한 것은 그 마을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동네’와 ‘우리 엄마’에 공동체성이 전제된다는 병의 입장을 약화하지 않고 뒷받침한다.

① X. ㄱ만 고른 조합이다. ㄷ도 적절하므로 틀린 표현은 ‘ㄱ’만이라는 점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② O. ㄱ과 ㄷ만 적절하게 고른 조합이다.

③ X. ㄴ은 을의 입장을 약화하지 않는다. 틀린 조합은 ‘ㄴ, ㄷ’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④ X. ㄴ은 적절하지 않다. 틀린 조합은 ‘ㄱ, ㄴ, ㄷ’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오답 포인트

ㄴ에서 형제는 한 어머니를 실제로 공유한다는 점 때문에 ‘우리 엄마’가 복수의 엄마를 뜻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을의 주장은 ‘우리’가 언제나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대상을 뜻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형제의 사례는 그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리+명사’가 나오면 먼저 화자와 청자가 그 대상을 실제로 공유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화자 쪽의 대상을 관습적으로 ‘우리’라 부른 것인지를 나누어 본다. 이어서 제시된 사례가 어떤 입장과 모순되는지, 단지 그 입장과 함께 성립할 수 있는지를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우리’는 단순히 ‘나의 복수’가 아니라 공유 관계와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NoteBase

문 20. A와 B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는 아동의 사고와 언어의 발달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2~3세경에 '자기중심적 언어'가 나타났다가 8세경에 학령이 되면서 자기중심적 언어는 소멸하고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한다고 주장한다.

B는 A가 주장한 자기중심적 언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성격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를 지닌다. A와 달리 그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구안하는 데 중요한 사고의 도구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자기중심적 언어는 아동이 자기 자신과 대화할 때 나타나는데, 아동은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소리 내며 사고한다. 그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자연적 존재를 문화적 존재로 변모시키는 기능을 하며, 학령이 되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내면화되어 소리 없는 '내적 언어'를 구성함으로써 정신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자기중심적 언어의 전(前)단계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는 출생 이후 약 2세까지의 아이가 언어 이전의 '환상적 사고'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환상적 사고는 자신과 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신과 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의사소통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A는 이 단계의 아이가 보여주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B의 경우 출생 이후 약 2세까지의 상호작용을 의사소통 행위로 판단한다. 그에 따르면 이때의 의사소통 행위는 타자의 규제와 이에 따른 자기규제가 작동하는 대화적 상호작용의 일종으로, 사회적 언어를 통해 수행된다.

B 역시 A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언어와 사고의 발달이 3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는 사회적 언어에서 출발하여 자기중심적 언어를 거쳐 내적 언어 순으로 진행된다고 본다.

<보기>
ㄱ. '자기중심적 언어'의 단계 전에 A는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B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ㄴ. A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학령이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반면, B는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ㄷ. A와 B는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A와 B의 자기중심적 언어에 대한 성격과 언어·사고 발달 방향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는 자기중심적 언어를 아동이 타인과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시기의 현상으로 보고, 학령기가 되면 사라진다고 본다. 결정 차이축은 자기중심적 언어가 의사소통과 사고에 하는 역할이며, 키워드는 개인적 언어에서 사회적 언어로의 이동이다.
B는 자기중심적 언어를 아동이 자신과 대화하며 문제 해결을 돕는 사고의 도구로 보고, 소멸하지 않고 내면화되어 내적 언어가 된다고 본다. 결정 차이축은 사회적 언어가 내면화되는 과정이며, 키워드는 사회적 언어→자기중심적 언어→내적 언어이다.
A는 언어 이전 단계의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으로 보지 않지만, B는 타인의 규제와 자기 규제가 작용하는 대화적 상호작용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도 옳다. A는 자기중심적 언어 이전의 아동이 자신과 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으로 보지 않는다. B는 그 시기의 상호작용도 사회적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본다. 틀린 표현은 'ㄱ만'이라는 취지이며, 올바르게는 ㄱ과 ㄴ이다.
② X. ㄱ과 ㄴ은 모두 옳지만 ㄷ까지 옳다. A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학령기에 소멸한다고 보지만, B는 그것이 소리 없는 내적 언어로 내면화된다고 본다. 또한 A는 사회적 언어 단계가 뒤에 온다고 보고, B는 사회적 언어에서 발달이 시작된다고 본다. 틀린 표현은 'ㄱ, ㄴ만'이라는 취지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③ X.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다. A와 B는 자기중심적 언어 이전 단계의 상호작용이 의사소통인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틀린 표현은 'ㄴ, ㄷ만'이라는 취지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④ O. ㄱ은 자기중심적 언어 이전 단계의 의사소통 가능성에 대한 두 사람의 차이를, ㄴ은 자기중심적 언어의 소멸 여부에 대한 차이를, ㄷ은 사회적 언어 단계에 이르는 발달 방향과 시기에 대한 차이를 각각 정확히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A와 B 모두 자기중심적 언어를 인정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ㄴ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A의 '소멸'과 B의 '내면화'는 정반대이다. 또한 ㄷ에서는 사회적 언어가 A에게는 발달의 도착점이고 B에게는 출발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기중심적 언어가 사라지는지, 내적 언어로 바뀌는지를 먼저 구분한다. 이어 언어 발달의 출발점이 개인적 언어인지 사회적 언어인지와 언어 이전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으로 보는지를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A는 개인적 언어에서 사회적 언어로, B는 사회적 언어에서 자기중심적 언어를 거쳐 내적 언어로 진행된다. A는 소멸, B는 내면화이다.

NoteBase